

장마철 축사·가축분뇨처리시설 점검 필수

지붕·벽면 빗물 유입막고 퇴비시설 물 빠짐 정비

출처: 농촌진흥청

- ◎ 농촌진흥청(청장 김경규)은 장마철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방법을 소개하며, 철저한 점검으로 피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
- 주로 6월 말부터 7월 말 사이 장마철에 발생하는 집중호우는 축사 시설 피해와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.

* 국내 장마 기간 중 전국 평균 강수량(10~19): 316.2mm(기상자료개발 포털)

- ◎ 장마 기간 축산농가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크게 △축사 및 분뇨 저장시설 점검 △축사 내 깔짚 관리 △장마 후 환기 등이다.
- 축사의 경우 빗물이 들어오면 가축 질병과 감전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지붕과 벽면에 손상된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핀다.
 - 수리가 필요할 경우 가축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후 시설을 고친다.
- 가축분뇨 저장 장소와 퇴비시설의 경우 물 빠짐 시설을 정비한다.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방수자재(인치커튼, 비닐)로 차단해 가축 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.



축사내 바닥 깔짚



가축분뇨 저장 및 퇴비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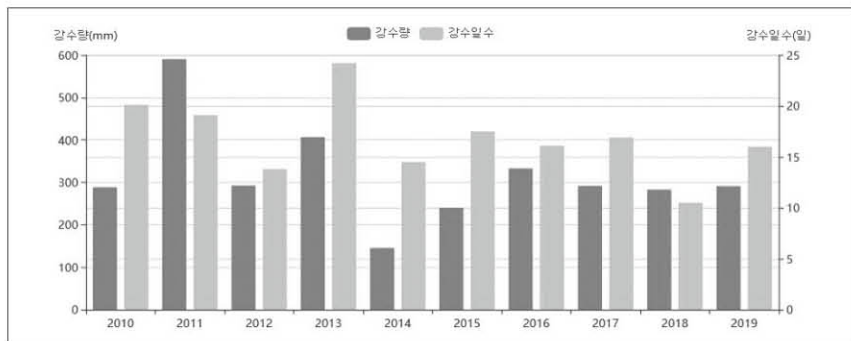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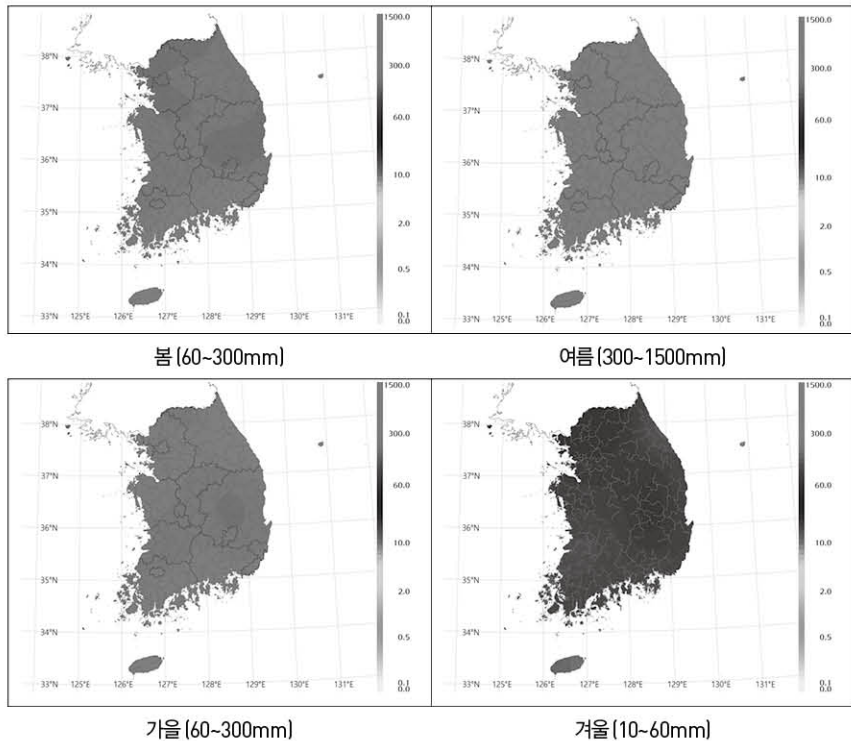
- 장마기간 동안에는 퇴비화 관리, 분뇨 유출 등의 이유로 축사 바닥의 깔짚 교체를 자제한다. 다만, 급이구(먹이통)나 급수대(물그릇) 주변의 깔짚은 마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주 확인하고 보충·교체해야 한다.
- 장마철이 지난 후에는 축사나 가축분뇨저장시설을 반드시 소독·환기시킨다. 축사 내 깔짚 교체 등을 통해 시설 내부 습도를 40~60%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다.

참고 **국내 장마철 평균 강수량**

◆ **최근 10년간(2010~2019) 장마철 평균 강수량**

- 국내 장마철 평균 강수량은 316.2mm, 강수일수는 17~18일로 나타나 12월 대비 약 10배 이상의 강수량을 보임
- 장마기간 집중호우는 축사시설의 피해 및 가축 생산성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됨

<계절별 강수량변화>



장마기간 중 전국 평균 강수량 및 강수일수, 기상자료개방포털